

금융 Weekly Insight

높은 시장 변동성 속 실적 및 Valuation 매력도 부각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7월 둘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79.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1.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전주 금융주는 모두 KOSPI 대비 높은 수익률을 시현. 은행과 증권이 각각 13.7% 및 12.8% 상승하였으며 보험은 1.1% 상승.
- 금융 업종은 방어주와 같은 주가 흐름을 시현. 특히, 은행과 증권 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견조했던 것은 유가 하락으로 대변되는 매크로 리스크의 일부 완화와 2Q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그리고 주가 조정으로 인한 Valuation 매력도에 따른 것으로 판단.
- 2분기는 물론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여지가 충분한 만큼,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Valuation 저평가 국면에서는 비중 확대 관점에서의 접근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판단.

금융 Overview

- 은행 - 높은 시장 변동성 속 안정성 확인: 은행주는 13.7% 상승하며 시장 조정 속에서 견조한 흐름을 시현. 이는 1) 은행들의 낮은 Valuation 및 상반기 전고점 대비 낮은 주가 수준으로 downside 리스크가 제한적인 가운데, 2) 은행들의 이자 이익 성장 중심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고, 3) 특히 일부 금융그룹들은 계열 증권사 실적 호조에 따른 영향까지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방어주로서의 성격이 보다 부각된 것으로 판단. 2Q 중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주주 환원. KB 금융을 중심으로 하반기 자사주 매입 규모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하나금융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는 등 기업의 실적 개선의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적극 활용의 확인 가능성에도 초점 필요. 즉, 단기적으로 은행주는 실적 시즌과 더불어 일부 은행의 주주 환원 강화 발표가 여전히 Valuation의 추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조정을 비중 확대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
- 증권 - 실적 기대감 주가 반영 본격화: 증권주는 주간 +12.8% 상승하며 KOSPI(-3.8%) 대비 크게 아웃퍼폼. 증권 업종은 그동안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을 지속하였으나, 1) 반도체 주 중심 주가 조정에 따른 수급 전환 및, 2)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이 겹치며 초과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 투자자들은 하반기 거래대금 축소 및 투자운용 수익률 둔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PBR 1.0배 내외까지 조정된 현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비중 확대가 여전히 유효한 구간으로 판단.
- 보험 - 손해율 개선 기대가 하방을 방어: 보험주는 주간 +1.1%로 KOSPI 대비 아웃퍼폼했으나 금융 업종 내에서는 가장 부진. 계열사 지분 가치 하락으로 삼성 보험사 주가는 다소 정체되었으나, 1) 방카슈랑스 판매 한도 완화 및, 2) 도수치료 관리 급여 전환(7월 시행)과 5세대 실손 전환 개시에 따른 비급여 손해율 구조 개선 기대 등이 주가 하방을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 실적 시즌을 전후해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재무 개선 효과 검증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p>(6/30) 주식 빚투 위한 가계 차입 38조원으로 예년 2배 수준으로 증가 -금감원에 따르면 5월 말 신용 용자 잔액은 38조원으로 2.3조원 m-m 증가하였으며, 과거 5년 평균 20.1조원 대비 17.9조원 상회. - 은행권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쓴 금액이 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주식 투자에 유입된 것으로 은행권은 추정. 5대 은행 기준 5월 1.9조원, 6월 1.8조원 증가하였음.</p>	<p>5월까지 개인 순매수 97조원 대비 비중 고려 필요: 가계의 주식 투자를 위한 차입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고, 그 규모 또한 수 조원에 달하는 점은 분명 우려 요인. 다만, 현재의 국내 증시 투자를 가계가 빚에 의존한 빚투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 실제로 5월까지 개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금액은 97조원인데, 이 중 가계가 부채를 활용한 것은 13조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더 나아가 4월까지 가계 일반 대출은 오히려 역성장세를 시현했음. 이는 현재의 국내 증시 투자가 빚투보다는 가계의 신규 소득에 기반한 투자와 기존 금융자산의 리밸런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시사. 즉, 당초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이 과도하게 예금과 보험 등 안전자산 중심이었던 점에서 전환되고 있음에 보다 초점 필요. 물론, 과도한 빚투는 지양 필요 -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강화 중: 물론, 개인 순매수는 증시 변동성이 높게 나타난 3월과 5월 등에 높게 나타남은 물론, 5월에는 부채를 활용한 유입이 늘어난 점은 분명 건전한 투자에 있어 부담이라 판단. 즉, 과도한 빚투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고 판단.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과도한 우려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p>
	<p>(6/30) 너도 나도 토스증권 벤치마킹 - 토스증권의 차별화 무기였던 주식 모으기와 투자자 커뮤니티, 어닝콜 요약 서비스가 경쟁사 MTS로 빠르게 확산. 이에 토스증권의 서비스 차별성이 희석. - 특히, 카카오페이증권은 토스증권과 가장 자주 비교되는 증권사로 토스증권과 유사 서비스가 잇따라 도입되며 두 앱이 유사하다는 반응도 제기. - 참고로, 양사 실적은 토스증권의 영업수익이 8830억원으로 카카오페이증권 2421억원의 3.6배를 기록.</p>	<p>MTS는 물론 금융 플랫폼 자체가 모두 유사해지는 상황: 사실 금융 앱들 자체가 유사해지는 모습. MTS뿐만 아니라 금융 플랫폼도 사실 토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물론 전통 은행계 금융그룹의 통합 앱도 유사해지고 있음. 실제로 최근 금융그룹 앱들 또한 증권 투자 탭을 통합 앱에 가시성 높게 위치시키는 것은 물론, 투자 화면도 유사. 참고로, 국내 금융 플랫폼사들의 MTS화면은 사실 해외 금융 플랫폼과 유사성을 띠어왔음. 결국, 이와 같이 유사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해당 UI가 가장 고객 친화적이라는 점이 증명되어 왔기 때문이라 판단. 혁신 없는 모방의 종착점은 무제한 가격 경쟁 - 결국 고민은 차별성 제고: 다만, 금번 기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금융사들이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결국 차별성. 모든 플랫폼이 유사할 경우, 마지막 종착지는 가격 경쟁으로 이는 향후 시장 포화도에 따라 금융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이로 인해 필요한 투자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 결국, 금융 플랫폼들이 비슷한 UI 속에서 어떻게 비가격적 요인으로 차별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을 Lock-in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 상품 혹은 서비스 차별화 역량에 초점 필요: 결국 플랫폼 입장에서는 고객이 다른 곳에서는 접하지 못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 이와 관련 단순히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1) 상품 sourcing의 차별화와 2) 금융상품의 packaging을 통한 고객 효용 증대 등이 대표적이라 판단.</p>
	<p>(7/1) 중앙그룹발 회사채 시장 냉각 -올해 만기를 앞둔 기업들의 차환 발행 우려가 확대. 이는 1) 올해 시장금리가 연초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은 물론, 2)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컨센서스이고, 3)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생절차 신청 후 공모채 발행까지 위축된 영향. - 실제로, 최근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한 일부 기업들의 경우, 과거에 비해 투자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며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p>	<p>다만, 과거 레고랜드 사태와는 차별화 필요: 레고랜드 사태 당시 회사채 시장에서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1) 정부 보증과 관련된 우려 확대, 2) 고물가 및 FED의 급격한 금리 인상 속 가파른 국내 시중 금리 상승, 3) 부동산 PF로 대변되는 부동산 금융 관련 회사채 시장 전반에 대한 건전성 우려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 반면, 금번에는 금리 상승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고, 중앙그룹의 경우 기업 고유의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 여신에 있어 가격 협상력 제고에 초점: 즉, 부동산 금융 사태와 같이 전방위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채권 시장의 냉각은 역설적으로 은행의 기업대출 가격 협상력을 증대시키는 요인. 이미 은행들은 생산적 금융으로 인해 오히려 대출 성장률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양질의 대출 수요 추가 증가는 은행의 마진 관리에 보다 용이한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p>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p>(7/1) 5대 은행 6월 가계대출 4.1조원 증가 - 11개월 만 최대 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시중은행의 6월 가계대출이 4.1조원 증가. 이는 25년 7월 4.1조원 증가 이후 최대 증가 폭이며 5월 3.5조원보다도 늘어난 것. - 주담대가 1.8조원 증가하였고, 집담대는 0.9조원, 개인 신용은 2.2조원 증가. 참고로 개인 신용대출 증가 폭은 5월 2.2조원과 유사. - 한편 중소기업대출은 1.7조원 감소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4.9조원 증가하며 상반된 모습. 	<p>가계대출 0.5% m-m 증가: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0.5% 증가하며 관리목표 대비 다소 빠르게 증가. 주담대 성장의 경우 5월 다주택 양도세 종과 유혜 종료에 따른 거래 증가가, 신용대출은 높은 증시 변동성에 따른 자금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p> <p>예상 상회 대출 성장은 2Q 이자 이익에 긍정적 요인: 예상을 상회하는 대출 성장과 더불어 가계 신용대출 비중의 확대는 시중금리 상승과 더불어 은행 NIM에 긍정적 요인. 즉, 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1Q에 이어 2Q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여지가 크다고 판단.</p>
	<p>(7/2)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목표 미준수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는 2일 3개 카드사와 2개 캐피탈사를 소집. 가계부채 관리 차원. 금융위는 지난 5월에도 6개 카드사를 소집, 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 관리를 주문한 바 있음. 하지만, 이후에도 카드론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자 최근 카드론 증가율이 높은 회사 중심 다시 집중 관리에 들어간 것. - 카드론은 12월 말 42.3조원에서 5월 43.3조원으로 1조원 가까이 증가. 올해 카드론 풀마 카드사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는 1.0%이지만, 대부분 카드사가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하고 있음. 롯데와 NH가 4%대 YTD 성장률을, 하나와 우리가 2% 이상, KB와 현대가 1% 후반의 증가율을 기록 중. - 상호금융도 올해 11조원가량 가계대출이 증가하며 4% 내외 증가, 목표 증가율을 상회. 	<p>금융사들은 연말 대출 관리 가능하지만, 문제는 대출 절벽: 가계신용 대출은 만기가 통상적으로 1년가량으로 짧은 만큼, 현재 대출 수요가 높을 때 대출을 늘리고, 연말에 만기 도래하는 대출을 통해 연간 성장률을 관리하는 것이 대출 성장률 규제하에서 금융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합리적 방안. 다만, 문제는 해마다 이로 인해 연말에 대출 절벽이 초래되고 이는 소비자의 피해로 귀결.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p>
	<p>(7/2) 대기업, 회사채 발행대신 은행 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일 금융권에 따르면 1일 기준 회사채 (무보증 3년) AA- 금리는 4.466%로 작년 말 3.476% 대비 0.99%p 급등. 1) 시중금리 상승과 2) 증시로의 머니무브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 이탈, 3) 최근 제이알글로벌 리츠와 중앙그룹 회생 신청 등이 맞물리며 가파른 상승 야기. - 이에 대기업들은 은행 대출로 눈을 돌리기 시작. 5대 은행의 대기업대출 잔액은 6월 말 190.4조원으로 4.9조원 m-m 증가하였으며 연초 대비 20조원 이상 증가. - 은행 입장에서 대기업 대출은 금리가 4% 내외 수준인 가운데, 연체율이 0.1%를 하회할 정도로 안정성이 높고,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기업금융 증대에 대한 니즈 또한 높음. 	<p>은행 이자 이익 관점에서 긍정적: 은행의 이자 이익에 있어 성장과 마진 관점에서 은행의 가격 협상력 증대 및 기업의 수효확대는 긍정적 요인. 더 나아가, 이들 대기업 여신은 연체율도 낮다는 점에서 총담금 부담도 적은 만큼, 실질적인 ROA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p> <p>다만, 생산적 금융 강화도 고려 필요: 다만, 은행의 과도한 대기업 대출 성장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 이는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 강화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 즉, 점진적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따른 낙수효과가 커질수록 은행의 중견 및 중소기업 대출 또한 점차 확대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 더 나아가, 은행들은 자본비율 관리에 대한 니즈가 높은 만큼, 기업 여신을 과도하게 늘리지도 못하는 한계 또한 명확.</p> <p>대기업 여신에 대한 접근 - 관계 금융 강화 기회로: 대기업 여신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단기 대출이라는 관점보다는 결국 대기업과의 관계 금융 강화를 통해 여신을 넘어 다양한 사업 기회의 창출 및 Lock-in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 즉, 중장기적으로는 비가격적인 요인을 통해 기업과 은행이 Win-win하는 구조를 확립한 은행이 보다 시장점유율 확대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판단.</p>
	<p>(7/4)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허용 - 기업대출 확대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들의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 이에 인터넷은행들은 기업자금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표자나 임직원 면담이 필요 시 대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그동안 인터넷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처리해야 했던 것에서 개선된 것. - 이번 제도 개선은 인터넷은행들의 기업금융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 인터넷은행 3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넘어 중소기업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음.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BNK부산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상 공동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며, 케이뱅크도 내년 출시를 목표로 비대면 중소기업대출 상품을 준비 중. 	<p>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시장 진출은 성장성 관점 긍정적: 인터넷은행 중 현재 상장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과잉자본 및 가계대출 성장의 한계가 Valuation 할인 요인으로 작용. 하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물론 중소기업대출로의 진출이 가능해진 만큼, 성장성 제고 관점에서 금번 규제 완화는 긍정적으로 판단. 특히, 인터넷은행들이 최근 행해온 시중은행과의 공동 대출 활용 시 성과 창출까지의 시기 또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p> <p>관건은 건전성 관리 역량: 다만, 관건은 건전성 관리 역량. 인터넷은행들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이행한 경험이 없고,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주담대, 전세대출과는 결이 다른 만큼, 향후 안정적 자산 건전성 관리 역량 확인이 또 다른 시장의 관심 영역이 될 것으로 판단.</p>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증권	<p>(6/29) "오늘 주식 팔면 모레 아닌 내일 입금"...결제 주기 단축 10월 나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당국이 주식 결제 주기를 현행 T+2에서 T+1으로 단축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오는 10월 공개할 예정. - 로드맵 발표 이후 외환(FX) 인프라 정비 등 선결 과제 이행을 거쳐 실제 시행은 2027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이 2024년 5월 T+1 전환을 완료한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 합류를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의 일환으로,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은 2027년 가동 목표로 별도 추진 중. - 단기적으로 증권사 IT·백오피스 인프라 업그레이드 투자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나, 결제 리스크 감소와 담보 효율화 효과가 중장기 상쇄 요인." 	<p>T+1 로드맵 발표, 결제 인프라 개선 가속 전망: 10월 로드맵 공개는 T+1 전환의 방향성과 일정을 공식화하는 중요 이정표로, 자본시장 인프라 현대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그널. 증권사 입장에서는 IT·결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단기 비용 요인으로 수반되나, 결제 실패 감소와 담보 소량 절감 효과는 중장기 비용 효율화로 연결될 전망. 외국인 투자자 FX 처리 인프라 확충 여부가 실제 시행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 선결 요건.</p>
	<p>(7/2) 금감원, 신한·키움 검사 착수...JTBC 회사채 불완전판매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을 대상으로 JTBC 회사채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착수. - JTBC 경영 악화로 해당 회사채 투자자의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판매 증권사의 투자자 적합성 심사 및 위험 고지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 금감원은 앞서 채권형 랩 불완전판매에 대해 60~70% 배상 기준을 제시한 바 있어, 유사 수준의 배상 결정 가능성이 시장의 관심으로 부각. - 회사채 판매 채널 전반으로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기초의 연장선으로 해석. 	<p>JTBC 회사채 검사, 증권사 리테일 채권 판매 리스크 전면 점검 국면 진입: 채권형 랩에 이어 회사채 판매 채널로 감독 범위가 확장되면서 증권사 전반의 채권 리테일 판매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정비 압박이 가중되는 국면. 배상 비율 60~70% 기준이 적용될 경우 판매 증권사들의 관련 총담금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 중기적으로 고수익 채권 리테일 판매 영업에 보수적 기조 전환이 불가피하며, 채권 판매 수익성 압박 요인으로서의 연결 여부 모니터링이 필요.</p>
	<p>(7/2) STO 다음 격전지는 채권·MMF...증권사 선점전 본격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투자(STO) 시장의 대상 자산이 부동산·미술품을 넘어 채권과 MMF로 확장되면서 증권사 간 플랫폼 선점 경쟁이 본격화. -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가이드라인 정비가 진행되며 채권 STO 서비스의 시장 출시 시점이 구체화되는 흐름. - 기존 채권 투자의 높은 최소 투자 단위 장벽이 STO를 통한 소액 분산투자 구조로 전환되며 리테일 투자자 접근성 제고 기대. - MMF 토큰화는 단기 자금 운용 수요를 플랫폼 내로 흡수해 증권사 AUM 확대의 새로운 경로로 부각. 	<p>채권·MMF STO 선점전, 플랫폼 AUM 확장과 수수료 수익 구조화의 신성장 경로: 채권·MMF STO 전환은 기관 전용 자산을 리테일로 개방하는 구조적 변화로, 조기 진입 증권사의 플랫폼 고착화와 수수료 수익 구조 강화에 직결. 선점 효과가 강한 플랫폼 산업 특성상 초기 사용자 확보가 장기 수익성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토큰증권 인프라 준비 역량을 갖춘 대형 증권사에 손해가 집중 가능. 다만 토큰증권 유통 인프라 구축 비용과 규제 명확성 부족은 수익화 시점 지연 리스크로 점검이 필요.</p>
보험	<p>(7/2) 방카슈랑스 '25% 판매 룰' 푼다...생보 50%·손보 70%까지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 채널의 보험 판매 비중 상한을 현행 25%에서 생명보험 50%, 손해보험 70%까지 대폭 완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 - 2007년 도입 이후 19년간 유지된 25% 한도는 보험사의 채널 다변화를 제약하고 GA 채널 과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상황. - 규제 완화 시 은행·증권사 창구를 통한 보험 판매 확대에 설계사 수당 중심의 사업비 구조 효율화 기대. - 손보 허용 비중이 생보보다 높게 설정된 점에서 자동차·장기보험 중심 손보사의 채널 확대 수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전망. 	<p>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손보사 채널 전략 재편과 사업비율 개선의 구조적 기회: 방카슈랑스 비중 상한은 GA 채널 이관을 통한 신계약비 효율화와 CSM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손보 70% 허용에 따라 삼성화재·DB손보 등 대형 손보사의 채널 전략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 장기적으로 방카 비중 확대는 보험사 사업비율 하락과 K-ICS 안정화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 가능. 다만 은행 채널의 보험 판매 역량 및 소비자 수용도가 제도 효과의 현실화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실질적 효과 발현까지는 일정한 전환 기간이 수반될 전망.</p>
	<p>(7/3) 몸값 낮춘 롯데손보... 신한·한투 인수 2파전 돌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손보 매각 협상이 신한금융지주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양자 구도로 좁혀지며 2파전이 본격화. - 최대주주 JKL파트너스가 당초 2조원대에서 몸값을 1조원 안팎으로 낮추며 엑시트 의지를 가시화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 신한금융은 손보 계열사 강화를 통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 한투는 증권·자산운용·은행에 이어 보험 계열사 편입을 통한 종합금융그룹 완성을 각각 추진. - 다만 롯데손보 K-ICS 정비를 위해 지분 인수대금 외 1조원 이상의 추가 자본 투입이 불가피한 구조. 	<p>롯데손보 인수전, 신한 vs 한투의 비은행 전략 분기점이자 추가 자본 부담 테스트: 신한금융에게 롯데손보 인수는 손보업계 7위권 진입을 통해 타 금융그룹 대비 열세인 손보 계열사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비은행 성장 기회.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보험 편입 시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대와 종합금융그룹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가 가능하며, 최종 인수자의 딜 구조 설계가 자본 효율성 판단의 핵심 변수. 다만 인수가 1조원 수준에 추가 자본 1조원 이상이라는 부담은 양측 모두의 CET1·K-ICS 비율에 단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면밀한 점검 필요.</p>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7-06 (월)		미국 6월 ISM 비제조업지수 미국 6월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유로존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유로존 5월 소매판매 독일 5월 공장수주
2026-07-07 (화)	1분기 자금순환(잠정)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미국 6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미국 3년 만기 국채 입찰 독일 5월 산업생산 영국 6월 할리팩스 주택가격지수 일본 5월 경기동향지수(예비치) 일본 5월 가계지출 일본 6월 외환보유액 중국 6월 외환보유액
2026-07-08 (수)	5월 국제수지(잠정) KDI 경제동향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5월 도매재고지수 미국 주간 원유재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 입찰 미국 5월 소비자신용지수 일본 5월 경상수지 일본 6월 은행대출 일본 6월 경기현황지수
2026-07-09 (목)	옵션만기일 6월 금융시장 동향	미국 6월 기존주택판매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30년 만기 국채 입찰 유로존 EU 재무장관회의 일본 6월 공작기계수주(예비치) 중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생산자물가지수
2026-07-10 (금)	26년 12차 의사록 공개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독일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 일본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자료: 삼성증권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조원)	주가 (원)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6,419.2	8,088.3						(3.8%)	(8.1%)	159.6%	91.9%
	KRX은행	209.7	1,633.3						13.7%	7.3%	37.3%	25.3%
	KRX증권	77.9	2,296.1						12.8%	(9.1%)	64.1%	50.1%
	KRX보험	132.8	4,027.6						1.1%	(7.0%)	69.8%	50.5%
	결제 지수**	1,214	n/a						7.1%	(12.7%)	4.5%	(7.5%)
은행	KB금융	60.3	170,100	57.1	1.0	11.4	9.3	12.9	13.9%	8.6%	45.5%	36.4%
	신한지주	50.9	107,300	53.6	0.9	10.4	9.2	15.5	17.1%	11.3%	68.4%	39.5%
	하나금융지주	34.5	125,600	50.8	0.8	10.6	7.8	12.3	14.5%	7.4%	43.5%	33.5%
	우리금융지주	22.4	30,750	44.5	0.7	10.6	6.4	12.1	8.5%	2.8%	33.4%	9.8%
	기업은행	17.0	21,300	36.0	0.5	8.5	6.5	2.2	8.3%	4.7%	12.5%	1.7%
	BNK금융지주	5.8	18,780	45.1	0.5	8.3	6.6	9.5	18.3%	9.4%	42.7%	18.3%
	JB금융지주	4.9	26,150	42.2	0.5	9.5	5.3	21.9	14.4%	9.6%	20.8%	1.9%
	iM금융지주	2.8	17,710	51.8	0.8	13.2	6.5	6.6	11.9%	1.5%	33.2%	13.9%
카카오뱅크	10.6	22,250	50.0	1.4	8.8	17.1	29.1	12.7%	1.1%	(25.3%)	3.0%	
증권	미래에셋증권	23.9	42,750	40.5	2.0	18.2	15.2	72.9	6.2%	(26.0%)	99.2%	83.9%
	NH투자증권	11.2	31,400	45.7	1.3	12.6	11.1	19.4	13.4%	2.4%	53.9%	48.8%
	한국금융지주	13.5	242,000	22.4	1.1	20.0	6.4	23.6	21.0%	0.2%	75.5%	49.7%
	키움증권	9.1	348,500	22.6	1.6	22.6	7.8	44.7	13.7%	(4.3%)	56.3%	20.4%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8.9	112,900	50.0	1.7	22.8	8.2	14.9	12.2%	6.4%	(2.8%)	(0.2%)
	삼성화재	28.5	638,000	45.1	1.0	10.1	10.9	12.0	0.3%	(0.5%)	44.7%	28.4%
	삼성생명	76.6	383,000	46.3	0.6	3.7	15.9	17.8	(11.4%)	(20.2%)	201.1%	143.0%
	DB손해보험	9.6	146,800	32.3	1.1	16.6	6.6	9.0	11.6%	0.9%	19.0%	12.0%
	한화생명	3.9	4,470	16.4	0.3	5.6	6.3	37.8	1.1%	(7.9%)	35.5%	37.3%
	현대해상	3.1	36,700	11.7	0.5	17.5	3.3	18.3	6.7%	5.5%	34.7%	19.2%
결제	카카오페이	5.5	40,600	n/a	n/a	6.9	43.3	180.2	6.7%	(12.9%)	(47.3%)	(17.3%)
	NHN KCP	0.5	13,000	n/a	n/a	17.9	8.9	28.8	8.3%	(25.1%)	20.5%	(12.8%)
	KG이니시스	0.3	9,550	n/a	n/a	7.1	4.6	9.9	5.3%	(3.4%)	(12.0%)	(6.6%)
	KG파이낸셜	0.2	4,050	n/a	n/a	10.3	5.5	12.1	4.7%	(1.1%)	(24.6%)	(13.8%)
	나이스정보통신	0.3	30,200	n/a	n/a	9.1	4.6	39.4	7.9%	14.2%	34.2%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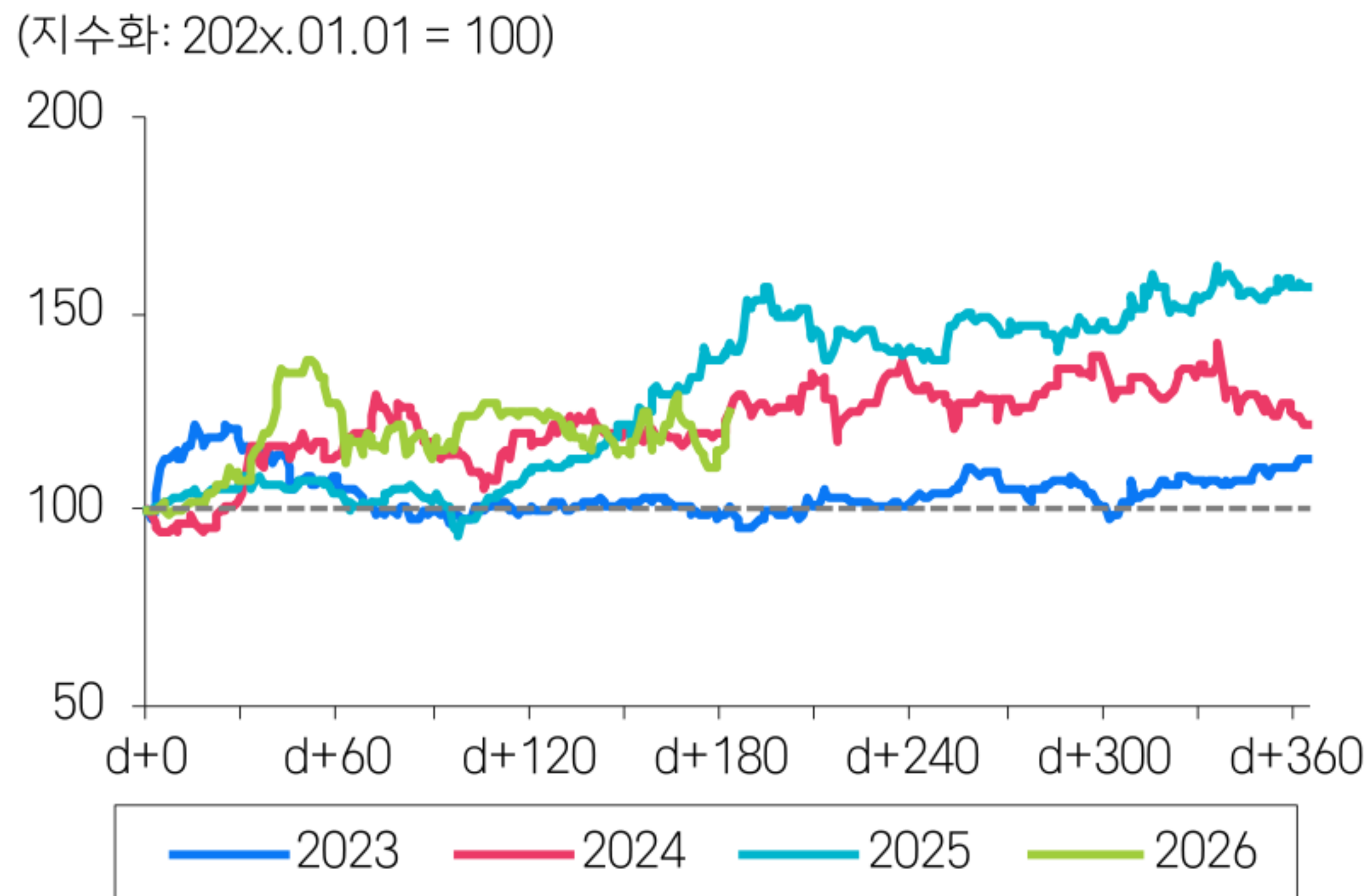
참고: 7/3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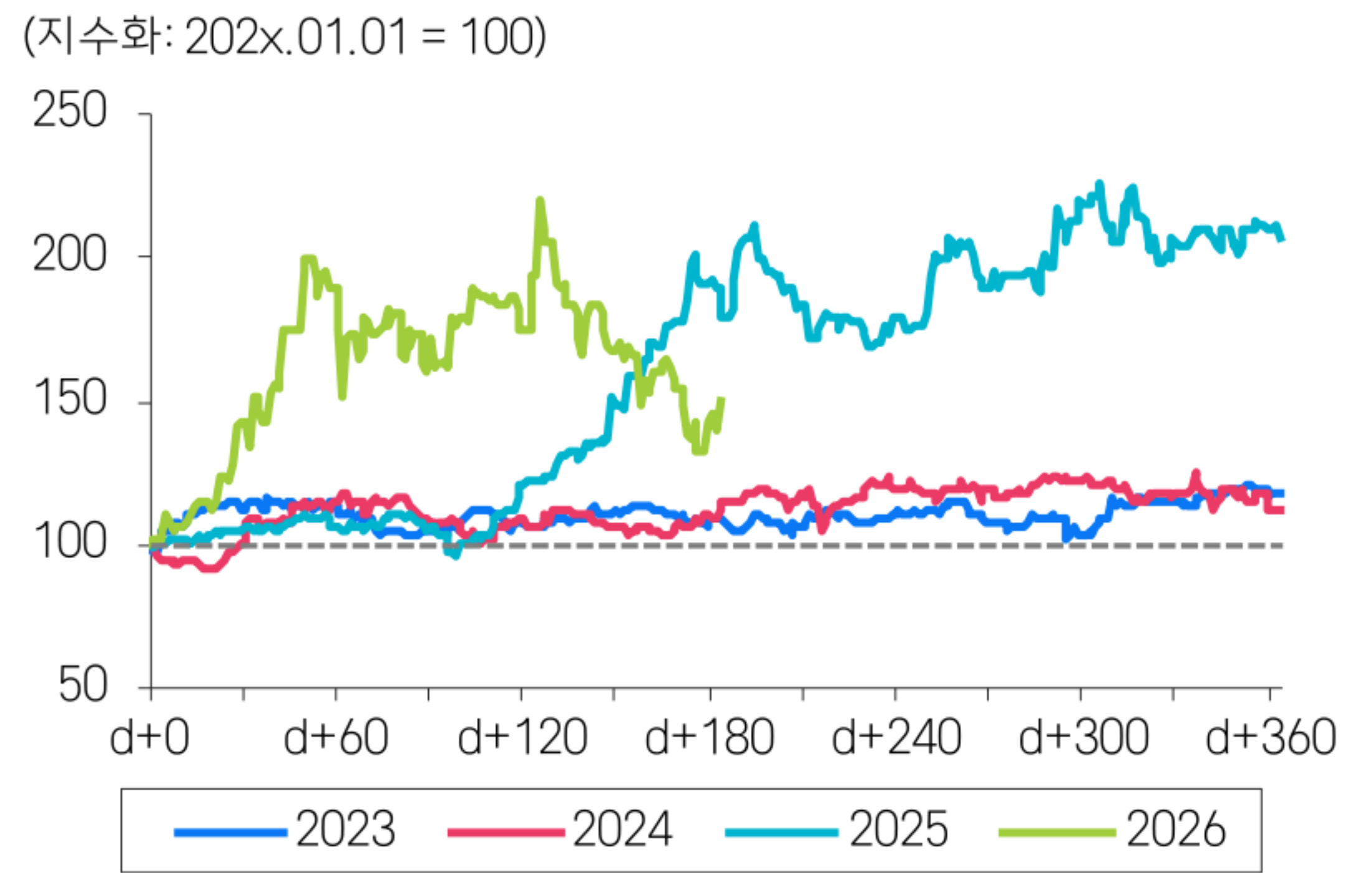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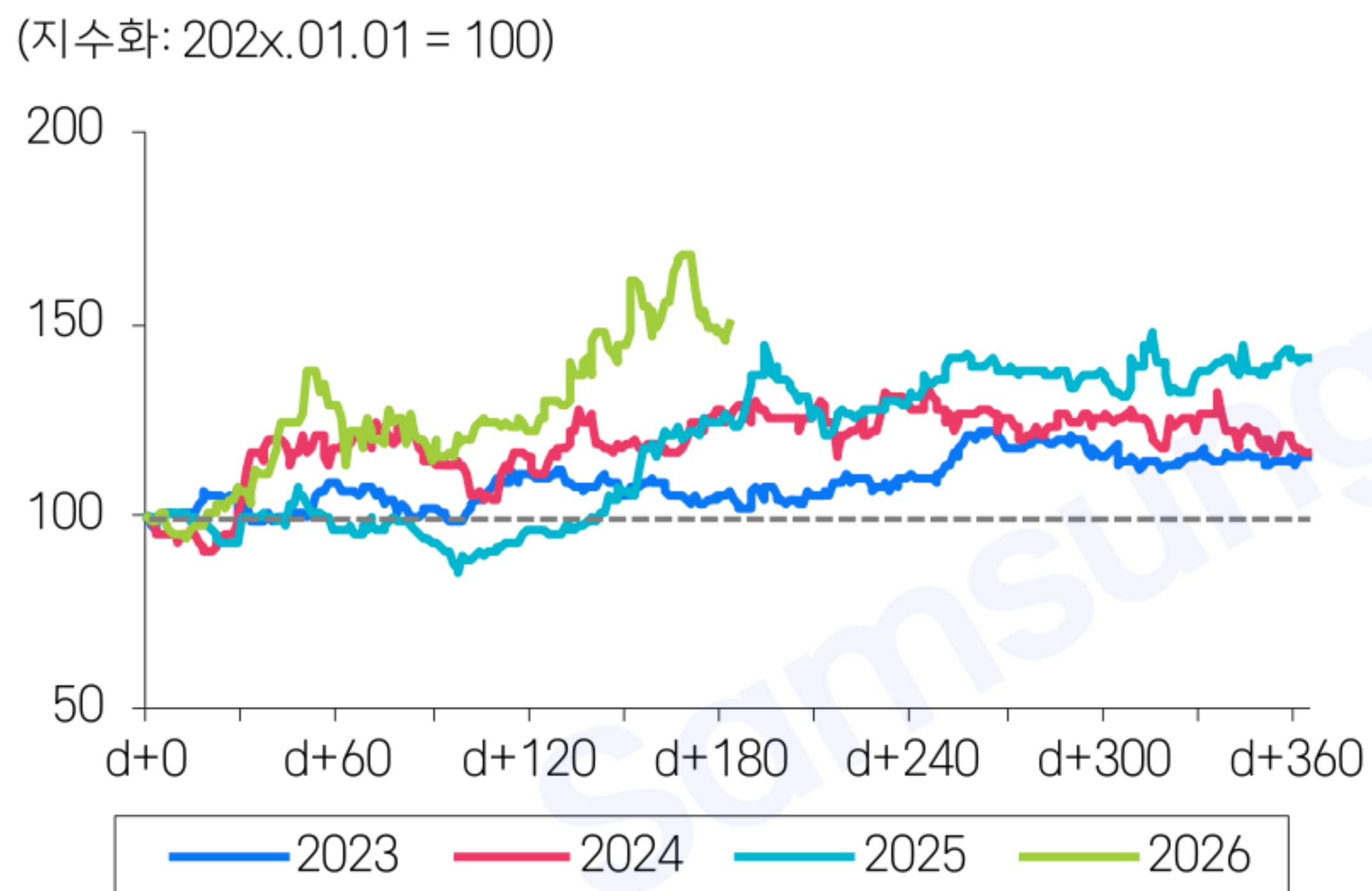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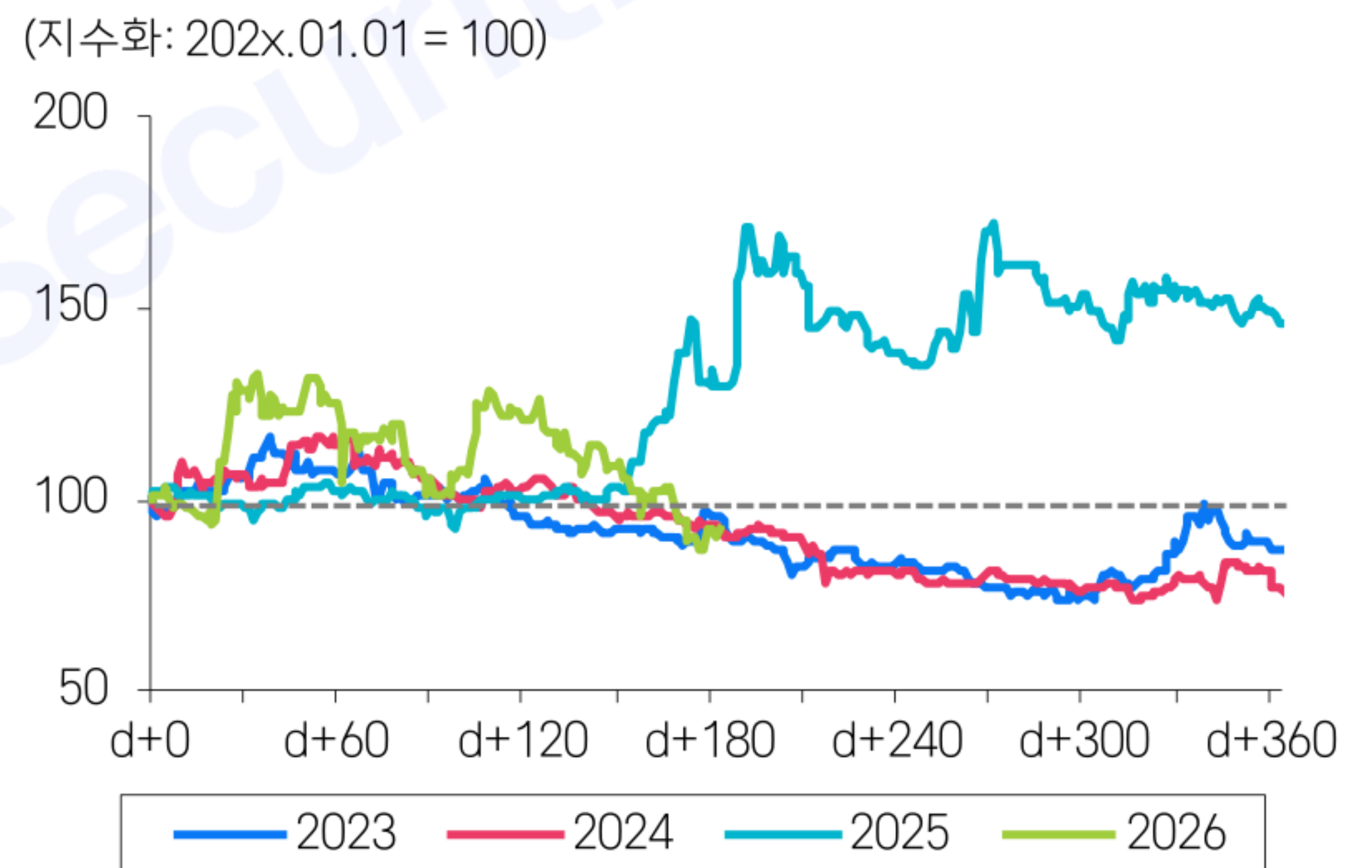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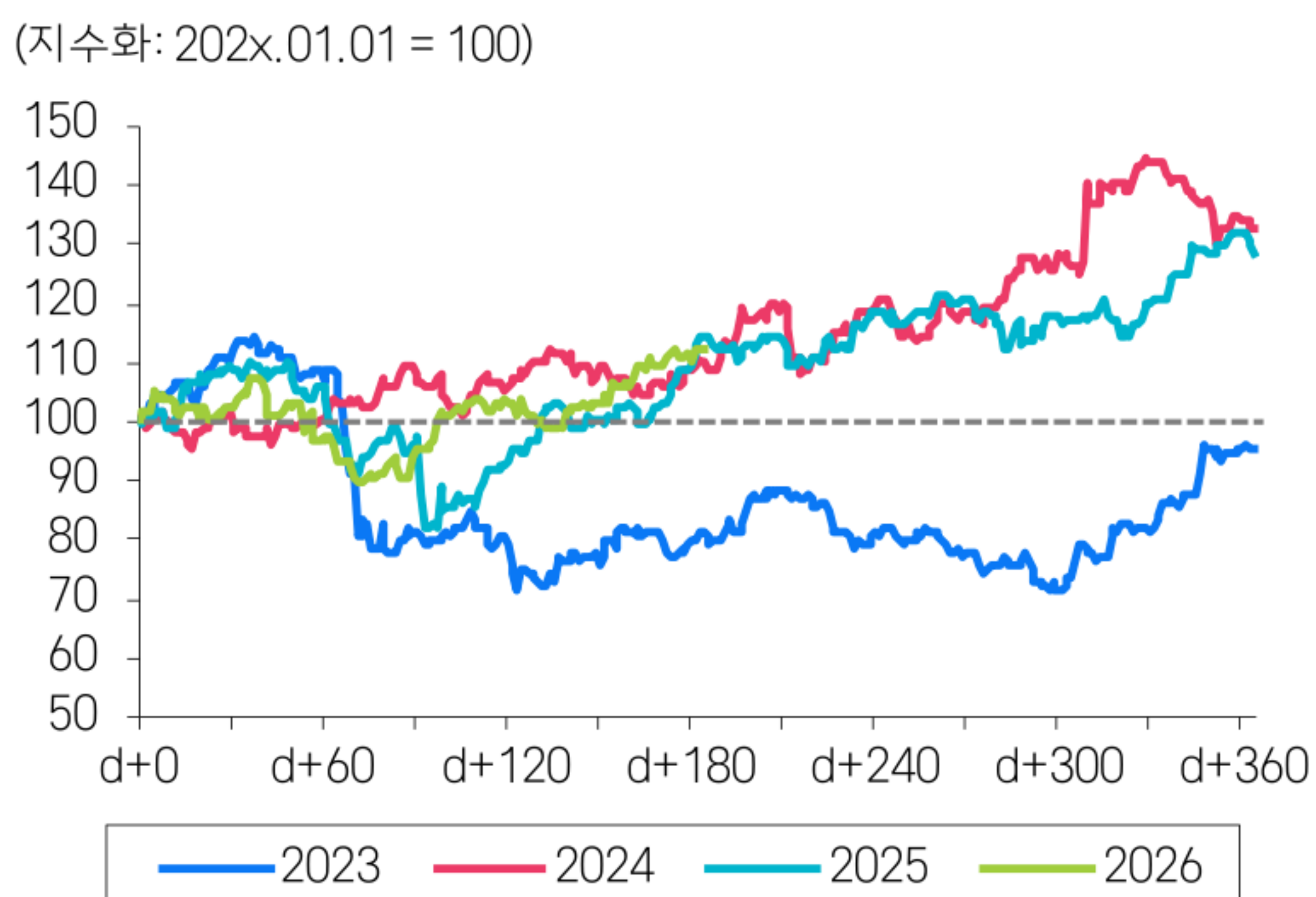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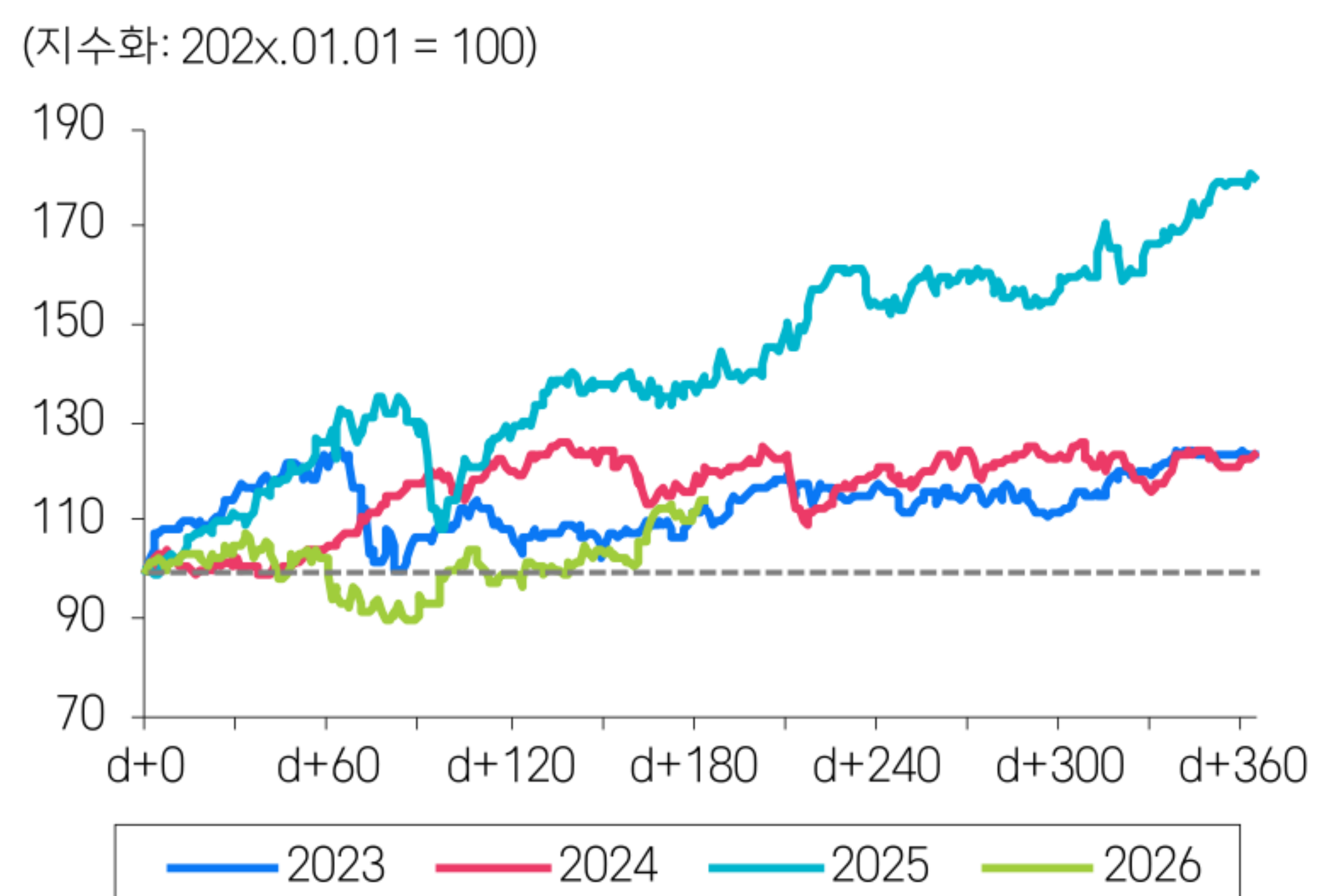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96.2	80.7	2.5	17.2	14.8	12.9	1.6	7.1	13.0	3.8
		Bank of America	416.8	103.2	1.5	11.8	13.1	17.8	1.5	9.1	20.0	6.8
		Citigroup	238.7	114.1	1.2	9.8	12.8	56.0	(1.3)	5.7	57.8	20.0
		Wells Fargo	261.7	97.3	1.5	12.8	12.3	11.3	2.0	4.4	2.3	(8.3)
		PNC Financial	100.2	75.0	1.7	12.8	13.5	11.6	1.8	9.2	26.9	19.5
	유럽	Banco Santander	208.6	63.6	1.7	13.8	11.4	13.7	5.0	16.3	74.2	23.3
		Unicredit	141.4	81.5	1.8	17.1	10.8	7.6	6.3	12.0	45.2	15.6
		BBVA	145.2	85.0	2.2	19.0	11.0	17.0	5.9	17.2	76.1	13.4
		ING Group	94.5	83.7	1.6	13.5	11.8	10.7	4.0	8.9	49.8	18.6
		Lloyds	89.5	81.2	1.5	13.7	10.2	44.4	5.4	16.0	52.7	17.1
		Barclays	94.2	66.9	1.0	10.7	9.1	19.6	2.3	14.1	58.0	9.7
	일본	Mitsubishi UFJ FG	244.5	50.3	1.6	12.0	14.0	11.8	2.5	3.3	65.0	33.4
		Sumitomo Mitsui FG	158.2	46.7	1.5	11.3	14.1	15.0	4.4	7.1	80.7	32.4
		Mizuho FG	122.2	54.0	1.6	12.3	14.3	12.0	3.6	4.7	99.2	41.7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51.1	30.5*	0.6	9.1	6.2	3.6	(2.9)	(5.9)	4.9	2.2
China Construction Bank		268.1	29.9*	0.5	9.6	5.9	2.0	(5.8)	(10.8)	(5.2)	1.2	
Agricultural Bank of China		298.6	30.6*	0.6	9.9	6.5	4.1	(0.6)	(9.1)	(6.9)	(8.3)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95.2	N/A	1.5	5.8	23.7	(30.9)	2.2	3.8	4.7	0.9
		AIG	42.1	84.3	1.0	10.2	11.0	흑전	5.1	5.2	(4.6)	(7.2)
		Travelers Insurance	72.8	83.6	2.1	18.6	12.1	3.0	4.6	12.9	29.6	18.0
	유럽	Allianz	182.6	80.5	2.5	18.4	13.6	11.4	2.9	12.6	22.9	7.5
		AXA	104.5	59.5*	1.8	16.4	10.5	(7.8)	0.7	10.6	6.6	6.7
		Generalli	75.3	57.9*	1.9	14.2	13.8	12.5	0.9	10.5	43.0	20.0
	일본	Tokio Marine	90.8	48.7*	2.5	17.3	15.1	80.2	9.9	8.4	28.5	30.4
		Daiichi Life Insurance	41.3	54.6	1.5	12.7	12.8	20.2	6.7	10.9	68.9	41.4
	중국	Ping An Insurance	126.6	36.1*	0.9	13.8	6.4	6.4	3.0	(8.5)	4.0	(20.1)
		China Life Insurance	145.7	20.1*	1.2	18.5	6.4	(18.9)	5.5	1.4	53.8	3.7
PICC P&C Insurance		40.3	38.2*	1.0	13.4	7.8	0.4	(1.0)	(0.4)	(6.0)	(13.1)	
증권	미국	Goldman Sachs	313.0	106.4	2.7	16.7	17.1	16.3	0.1	(1.7)	41.1	16.2
		Morgan Stanley	337.4	72.8	3.1	17.8	17.9	16.7	0.9	0.9	48.4	20.5
		Charles Schwab	173.6	95.9	3.6	23.1	16.2	28.9	7.0	9.2	6.0	(2.9)
		Robinhood	101.6	43.7	9.7	17.3	60.4	(9.0)	14.2	36.7	19.4	(0.3)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40.2	77.5	6.9	35.2	19.9	15.0	3.4	13.3	7.3	(4.9)
결제	미국	VISA	699.0	21.4*	20.2	67.0	28.3	25.5	7.7	11.9	0.9	3.3
		MasterCard	476.7	18.1*	55.2	223.2	27.8	17.5	8.1	9.8	(5.2)	(5.5)
		PayPal	40.1	5.4*	1.9	23.3	9.0	(6.4)	2.7	10.1	(40.6)	(22.1)
유럽	Adyen	31.2	0*	4.2	21.2	21.9	17.3	4.5	5.5	(43.2)	(37.3)	
핀테크	미국	Block	46.9	0*	2.0	9.8	35.7	5.3	1.3	15.7	13.9	21.1
		Upstart	3.3	0*	4.0	18.7	39.2	97.4	3.3	16.9	(52.9)	(20.5)
		Affirm	28.3	0*	6.7	11.8	67.8	732.1	6.4	33.0	22.2	13.6
	중국	LuFax	1.2	N/A	0.0	(0.1)	N/A	흑전	10.2	(3.4)	(49.8)	(45.3)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7/3 증가 기준

* 현금 배당 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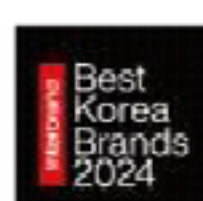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